

농가, 관광·연금으로 먹고 산다 농업소득 전년대비 26.8% 급감

농식품부·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비농업 소득 비중 80% 달해
쌀 재배면적·생산량·가격↓요인

농업을 영위하는 국내 농가의 소득이 본업인 농업소득보다는 농촌관광이나 국민연금같은 농업외 소득·이전소득의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농가소득 평균 4615만원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도 1296만원 대비 26.8% 급감했다. 반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와 농촌관광 등 겸업 및 사업의 소득으로 창출된 농업외 소득은 평균 1920만원으로 전년도 1788만원 보다 7.4% 늘었다. 또 농업인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등에 따른 이전소득은 1525만원으로 전년도 1481만원보다 2.9% 늘었다.

농가소득의 구성비를 보면 농업소득은 전년도 27.1%에서 지난해에는 20.6%로 6.5%포인트(p) 줄어든 반면 농업외소득은 37.4%에서 41.6%로 4.2%p, 이전소득은 31.0%에서 33.0%로 2.0%p 각각 증가했다.



단성면 농가 벼 수확 모습.

/산청군

농가 소득의 주업인 농업소득 비중은 5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반면 관광수입, 농축산물 등을 가공 생산해 판매하는 수입 등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 소득이 농가의 주 소득원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농업소득에서 미곡수입의 경우 쌀재배면적 감소 추세에 따라 지난해 생산량이 3.0% 감소했고 산지쌀값이 20kg 당 2021년 5만4888원에서 4만6592원으로 하락하며 전년대비 13.5% 감소했다. 축산수입도 한우, 계란 등의 공급 증가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며 전년대비 15.3% 줄었고 채소수입도 6.7% 감소했다. 반면 경영비는 지난해 국제 비

료가격 및 사료비 상승에 더해 에너지 가격, 환율상승이 겹치며 전년대비 비료비 19.3%, 사료비 17.8%, 광열비 15.5% 각각 급등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본직불은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지역·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농업 분야 내 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든든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metroseoul.co.kr

aT,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선정

3년간 화훼문화 진흥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하 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담기관은 앞으로 2025년까지 3년간 ① 화훼생활화 및 화훼이용 촉진지원, ②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

램의 보급지원, ③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지원, ④ 화훼산업 종사자,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⑤ 그 밖에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학계 유관기관 언론사 등 화훼, 홍보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위원회가 운영 적정성, 운영능력, 업무수행계획 등을 향

목을 서면평가 및 종합평가해 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를 선정했다.

이은석 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장은 지난 "1991년 양재 화훼공판장 개장 이래 32년간 화훼류 유통 개선, 소비 촉진, 화훼문화 활성화 등 화훼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경험을 토대로, 향후 화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기반을 조성하고 선진 화훼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공정위, 스위스 UBS-CS 기업결합 승인

합산 점유율·시장 집중도 낮아
가격 인상·경쟁사 봉쇄 가능성 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위스 최대투자은행 UBS가 크레디트스위스(CS)를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UBS는 지난 4월 6일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외국기업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스위스에 설립돼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두 글로벌 투자은행 간 합병으로, CS의 벤처투자 손실과 신뢰 위기로 인한 파산위험이 스위스를 비롯해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됐다.

스위스 정부가 약 1090억 스위스프랑(154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UBS가 인수한 자산에서 발생한 잠재적 손실 중 약 90억 스위스프랑(12조7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UBS와 CS 간 합병 거래가 성사됐다.

UBS의 한국 내 영업 중인 지점 또는 법인으로는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하나UBS자산운용, CS의 경우는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이 있고, 이들은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기업금융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나UBS자산운용은 UBS가 51%, 하나은행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양사 세부 영위업종에 대해 서비스별 기능 및 상호 대체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인가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증권·파생상품 중개 ▲M&A자문 ▲채권

발행 주선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의 4개 시장으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4개 세부 서비스 시장에서 각각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결합 유형별로 경쟁 제한 우려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수평결합이 이뤄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UBS·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거나 가능성 등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韓 '녹색산업', 이집트 진출 단순매립서 재활용 첫 사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준공 韓 새마을 운동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본했다는 이집트의 환경프로젝트 준공식이 17일(현지시간) NAC(New Administrative Capital)로 명명된 이 나라의 신행정수도에서 개최됐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 간 협력으로 성사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준공식이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을 단순 매립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연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이집트 환경정책의 첫 사례로 꼽힌다. 환경부는 "(우리) 중소기업 제이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에 이미 사업을 완공했지만 전기, 수도 등 제반시설 부족 탓으로 준공식이 차일피일 미뤄진 바 있다.

올해 2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이 실무진을 파견해 제반시설 지원을 협의

했고, 이후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이삼압텔 가니 압둘라지즈 압나 이집트 지역개발 장관 간의 최종 협의로 준공식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한 장관은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통해 협력국의 환경정책을 고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환경난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압나 장관은 "아랍어로 '하야카리마(인간다운 삶)'라는 이번 사업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본보기로 하고 있다"며 "한국과 이집트 간 민간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 장관은 준공식 참석하기에 앞서 17일 오전 이집트 카이로의 모카탐(Mokattam) 쓰레기 마을을 방문하여 이집트 카이로 현지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시찰하고 순환경제 완성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에너지화 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아스민 포아드 이집트 환경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강경성 "신한울 3·4호기 빠른 진행 바라"

(산업부 2차관)

취임 후 첫 현장행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이 취임 이후 첫 현장행보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2차관에 강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강 2차관은 이날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찾아 진행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직접 점검한 강 차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무엇보다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차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지체돼 착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수원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전



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원전정책 정상화와 함께 5년 만에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지난 3월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조9000억원의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15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주기기 제작에 착수했다.

이후 정부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 재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15개월 이상 일정을 단축해 올해 7월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 공사를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한국형 원전인 신한울 1호기(APR1400) 형식으로 1400메가와트(MW)급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준공 예정일은 3호기가 2032년, 4호기는 2033년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기부, 전통시장 디지털화 촉진

한진·전국상인연합회 맞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진, 전국상인연합회가 손잡고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중기부는 18일 오후 경기 부천 역곡 상상시장에서 조주현 차관, 노삼석 한진 대표, 정동식 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협약을 맺고 온라인 택배를 활용해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기로 했다.

한진은 자체 개발한 온라인 택배 시스템(디지털 이지오더)을 전통시장 상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등 상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일정 물량 이상에서만 운영하는 계약 택배 제도를 물량에 상관없이 도입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물류비용을 줄여 줄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